

연예종합

택연 “北 연평도 포격에 현역입대 결심”

최근 미국 대사관 찾아 영주권 포기 공익 판정도 재검신청 현역입대 계획 20대 초반 아이돌 가수, 이례적 선택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2PM의 멤버인 인기 아이돌 스타 택연(본명 옥택연·21·사진)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택연은 2008년 데뷔 직후 징병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았지만 재검을 통해 현역병으로 복무할 생각이다. 이로 인해 택연은 병무청에 재검신청을 할 예정이다.

택연의 영주권 포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얼마전 그가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부터. 스포츠동아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내용을 확인한 결과 택연이 1일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을 찾아가 영주권 포기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택연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본지의 확인 요청에 “택연 본인이 ‘군입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영주권 포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JYP측은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택연 본인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몇몇 연예인이 병역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최고 인기인기를 누리고 있는 20대 초반의 아이돌 스타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결정해 더욱 의미가 깊다. 택연은 초등학교 시절인 2000년 가족

을 따라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중, 고교를 다니며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는 JYP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2006년 한국으로 왔다.

택연이 현역 입대를 결심한 데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연은 영주권 포기과 자원 입대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다고, 11월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고 마음을 굳혀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고 한다.

영주권은 외국인인 특정 국가에 살면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이상 영구히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주권은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만 말소될 뿐 대한민국 국적은 유지된다. 그동안 연기자 차인표와 연정훈, H.O.T의 멤버 토니안, 신화의 멤버 에릭과 앤디 등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 입대를 선택했다.

2PM 첫 日쇼케이스서 2만5000명 대박

한편 택연이 속한 2PM은 8일 한국가수 최초로 도쿄 료고쿠에 있는 국가관에서 쇼케이스를 갖고 공식적인 일본 활동을 시작했다. 애초 2회로 예정됐던 쇼케이스는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돼 1회 공연을 추가, 총 3회 동안 2만5000명의 관객이 2PM의 무대를 지켜봤다.

2PM은 이번 쇼케이스에 앞서 6일 일본에 도착해 현지 약 100개 매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유명 일본 가수들과 함께 NHK의 음악 프로그램 녹화를 마쳤고 7일에는 2PM의 일본 진출을 위해 함께 손잡은 소녀뮤지커 시부야의 타이틀레코드 등을 방문했다. 음반 프로모션 이벤트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신나는 X마스...★★ 캐럴 쏘아지네

원더걸스 2AM 등 JYP사단 첫 앨범 성시경·박효신·브라이언도 입맛춤



올 겨울을 맞아 처음으로 캐럴을 발표한 박진영(왼쪽에서 두 번째)과 JYP 소속 가수들.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오랜만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캐럴이 가요계까지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가요계 불황 등으로 지난해까지 자취를 감췄던 캐럴이 올해는 잇따라 제작되고 있고, 특히 같은 음반기획사의 가수들이 함께 부르는 형태의 ‘합동 캐럴’이 올해 캐럴의 특징.

원더걸스, 2AM, 2PM, 미쓰에이 등 아이돌 가수들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는 ‘JYP NATION’이라는 이름으로 ‘디스 크리스마스(Dis Christmas)’를 내놓았다. 수장 박진영이 만든 노래로 임정희, 주, 산이 등 소속가수들이 총출동했다. 앨범 재킷과 뮤직비디오는 크리스마스 느낌을 그대로 살려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했다.

JYP측은 “JYP 이름으로 캐럴과 합창곡이 나온 것이 처음”이라며 “복잡복잡한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를 한껏 돋우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감미로운 발라드가 특징인 성시경, 박효신, 브라이언, 서인국, 박학기 등 켈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도 ‘켈리 크리스마스’를 최근 발표했다. 타이틀 곡 ‘크리스마스 타임’은 성시경, 박효신의 특색 있는 목소리와 하모니가 잘 어우러진 곡이다.

켈리피쉬 측은 “다 함께 모여서 부른 만큼 의미가 큰 앨범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자는 의미

에서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수들만 캐럴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과거 심형래, 강호동, 신동엽, 걸투 등 인기 개그맨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캐럴을 불러 화제가 됐고 이번에는 ‘달인’ 김병만 이 나섰다.

김병만은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달인’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류담, 노우진 등과 함께 캐럴을 불렀다. 이들은 개그맨답게 유머러스하면서도 재미있는 콘셉트로 노래를 불러,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대중문화평론가 강태규 씨는 “과거에는 캐럴 음반의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음원시대에 맞게 요즘엔 저렴한 음원만으로도 충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다”면서 “합동 캐럴 형태는 여러 가수들이 모여서 한 명보다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annjoy@donga.com

팜페라 테너 임형주 UN 평화메달 한국인 첫...세계 최연소 수상 영예

팜페라 테너 임형주가 한국인 최초로 자 전 세계 수상자들 중 최연소로 UN본부 무관단으로부터 평화메달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일 미국 뉴욕 UN본부의 UN총회장에서 열렸고 UN본부 무관단의 대표인 쥬세페 코코가 직접 임형주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임형주는 6일 UN본부 특별후원으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 ‘6.25 한국전쟁 60주년 기념공연-팜페라테너 임형주 독창회’ 수익금 2만 달러(약 2275만원)를 6.25 한국전쟁 참전 17개국 용사 후손들의 장학 사업을 위해 UN본부에 기부했다.

한편 임형주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릴 ‘2010 임형주 송년콘서트’ 준비에 한창이다.



한지민 아찔한 도발 연기자 한지민이 9일 공개된 영화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캐럴리터에서 파격적인 환복 입고 보랏빛 꽃을 배경으로 팜 파탈의 도도한 차태를 과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쇼박스

최수종-하희라 “집에선 임, 촬영장선 남”

드라마 ‘프리지던트’ 제작발표회 출퇴근 따로...집안 이야기도 안해

“부부가 함께 출연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 될 거예요.”

결혼 17주년을 맞은 연기자 부부 최수종·하희라가 결혼 이후 처음 함께 출연하는 KBS 2TV 드라마 ‘프리지던트’ 방송을 앞두고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두 사람은 특히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인 고현정 주연의 SBS 드라마 ‘대물’을 겨냥해 본격적인 경쟁을 선언했다.

최수종·하희라는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열린 ‘프리지던트’(극본 송영목·연출 김형일) 제작발표회에서 “촬영장

에서는 부부가 아닌 동료 배우”라고 선을 그으며 “일부러 집에서 대본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춘스타로 인기를 끌던 1993년 결혼했다. 결혼 전인 1991년 나란히 주연을 맡은 영화 ‘별이 빛나는 밤에’ 이후 같은 작품에 출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프리지던트’의 동반 출연은 화제를 모은다.

일찌감치 ‘프리지던트’에 합류한 최수종과 달리 하희라는 출연을 결심하기까지 긴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하희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의를 받고 말문이 막혔다”며 “장점보다 함께 할 때 단점이 더 많이 떠올라 걱정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두 달에 걸친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한 하희라와 최수종은 촬영장에서 철저히 ‘남편

으로 지낸다고 털어놓았다. 촬영장에 따로 출근, 각자 퇴근하는 건 물론 집안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15일부터 시작하는 ‘프리지던트’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야기. 권력의 변방에서 있는 정치인의 성공담이란 점에서 고현정 주연의 ‘대물’과 자주 비교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수종은 며칠 전 서울 시내 한 건물에서 ‘프리지던트’ 촬영을 하던 도중 우연히 ‘대물’ 팀과 마주쳤다. 마침 ‘대물’의 두 주역 고현정, 권상우가 모두 촬영 중이어서 경쟁 드라마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최수종은 “1~2초 동안 세 사람 모두 아무 말없이



최수종(왼쪽)·하희라 부부가 9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에서 진행된 KBS 2TV 드라마 ‘프리지던트’ 제작발표회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인사도 못한 채 멍한 상태로 바라봤다”며 “경쟁을 우려하는 의견은 있지만 작품 색깔이 다르다. ‘대물’이 멜로 중심이라면 우리는 가족이 중심”이라고 차이를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소시 “훗훗훗!”...日앨범 50만장 보인다

‘훗’ 현지 발표 앞두고 기대 커져

소녀시대가 일본진출 첫해 50만장의 판매량을 올릴 전망이다. 여기에 22일에는 새 앨범 ‘훗’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일본 진출 첫 해에 합계 50만 장의 판매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훗’은 싱글보다 구매력이 높은 앨범인데다 일반판, 한정판, 초회 한정판, 호화 한정판으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어서 소녀시대의 장대 평균판매량 10만 장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8월11일 발표한 DVD ‘소녀시대 도래-방일기념반-뉴 비기닝 오브 걸스 제네레이션’은 8만1034장이 판매됐고, 9월8일 발표된 첫 싱글 ‘지니’는 11만2724장, 10월 20일 발표된 두 번째 싱글 ‘지’는 두 장의 음반보다 많은 12만 4978장이 판매됐다.

DVD는 발표 17주차인 요즘도 하루 2142장이 팔리며 오리콘 DVD 6일자 주간차트 6위를 기록하며 통란하고 있다.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지니’와 2개월이 넘는 ‘지’

역시 6일자 주간 판매량에서 각각 2201장, 4155장을 기록해 여전히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22일에는 새 앨범 ‘훗’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일본 진출 첫 해에 합계 50만 장의 판매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훗’은 싱글보다 구매력이 높은 앨범인데다 일반판, 한정판, 초회 한정판, 호화 한정판으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어서 소녀시대의 장대 평균판매량 10만 장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녀시대는 4일 열린 2010 후지 TV ‘FNS가요제’에 출연해 29.4%의 순간최고시청률을 기록했고, 일본작곡가협회가 개최하는 제52회 일본 레코드대상에서 최우수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30일 T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시상식에서 최우수신인상에 도전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 잇북

●풍경의 깊이 사람의 깊이

최일남 지음, 송영방 그림, 문학의문



언론인 출신으로 소설가이자 명칼럼니스트로 통하는 작가의 주목같은 추억담, 독서 일기와 문학평, 현역 기자 시절 함께 한 문장가들과의 교류 등에 얽힌 추억이 담겼다. 노년의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과 여유, 해학, 유머, 사람과 풍경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통찰하는 웅송깊은 시선이 저릿하게 다가온다. 화가 송영방이 그려낸 삽화가 작가의 명문장과 함께 녹아들어 따스한 정서를 더한다.

●언더그라운드/약속된 장소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양역관 옮김, 문학동네 펴냄, 1만8000원/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이영미 옮김, 문학동네 펴냄, 1만2000원



1995년 일본의 음진리교 지하철사건 사건을 다룬 무라카미 하루키의 르포르타주. 각각 사건의 피해자와 음진리교 신도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언더그라운드’의 일순간 평온한 일상을 벗어난 재앙과 어긋난 종교생활이 가져다준 파멸의 삶, 그 충격적 회상은 저자의 베스트셀러 ‘1Q84’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 후속작인 ‘약속된 장소에서’는 8명의 명문장과 함께 녹아들어 따스한 정서를 더한다.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생명보험협회 상가번호 42010-2864(2010.8.12)

시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설종신보험Ⅱ

교보실손의료보험은 3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